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5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일본 R&I로부터 ‘A-’ 신용등급과 안정적 전망 유지 — page 1-2
- NAIA 요금 인상은 자의적 결정 아냐... 양허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운영사 밝혀 — page 2
- 필리핀, ‘기업활동 용이성 법’ 으로 외국 기업 유치 확대 — page 3
- 성장률 · 물가 부진에 완화 기조 지속 — page 3-4
- BMI: BSP, 하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 — page 4-5
- 인프라 지출, 6월에 반등 — page 5-6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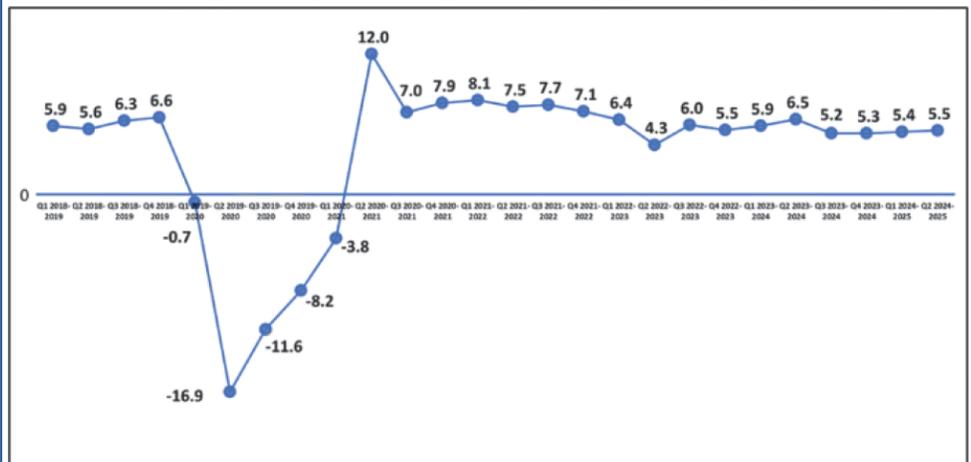
필리핀, 일본 R&I로부터 ‘A-’ 신용등급과 안정적 전망 유지

August 22, 2025 | Malaya Business News Team | Malaya Business Insight

Figure 1. Gross Domestic Product (At Constant 2018 Prices)

Year-on-Year Growth Rates (in percent)

Q1 2018-2019 to Q2 2024-2025



SOURCE: National Income Accounts,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필리핀은 일본 신용평가사인 일본 신용평가정보(R&I)에 따르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경제 상황에 힘입어 투자적격 등급인 ‘A-’ 신용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R&I는 필리핀 경제의 제한적인 대외 리스크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신용등급 유지의 배경으로 꼽았다.

신용평가사는 수요일 늦게 발표한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견조한 투자와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2024년 8월부터 필리핀에 동일한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안정적 전망’은 중기적 등급 전망을 반영한다.

R&I는 또한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중 하나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강조했다.

신용평가사는 안정적인 국내 소비, 지속적인 인프라 지출, 그리고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IT-BPM)과 전자 제조업의 확장이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2분기에 5.5% 성장해 1분기의 5.4%보다 소폭 빨라졌으며, 2024년 2분기에 기록한 6.5%의 고점을 지나 둔화된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GDP 수치는 정부의 2025년 연간 목표치인 5.5~6.5%의 하단 수준에 머물렀으며,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5.4%를 기록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7월에 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0.9%까지 떨어지며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초부터 7월까지 평균 1.7%를 기록했다.

R&I는 이러한 물가 안정이 성장 모멘텀에 긍정적인 전망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Cont. page 2]

필리핀, 일본 R&I로부터 ‘A-’ 신용등급과 안정적 전망 유지

[Cont. from page 1]

현재 경상수지는 건설 자재와 기타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적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R&I는 이것이 정부의 인프라 프로그램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R&I는 “경상수지가 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송금을 포함한 흑자 항목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강력한 해외 필리핀 근로자 송금과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해외 리스크를 “제한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I는 미국의 상호 관세가 필리핀 상품에 미칠 잠재적 영향(19%)도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필리핀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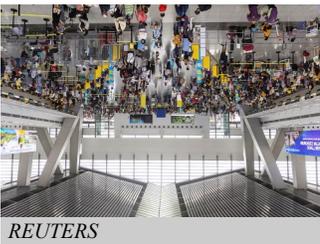
마르코스 행정부는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에 따라 인프라 개발 가속화, 민관협력(PPP)을 통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빈곤 완화를 약속했다.

R&I는 “마르코스 Jr. 행정부 아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국가 펀더멘털 개선의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ph-keeps-a-credit-rating-with-stable-outlook-japans-ri-2/>

NAIA 요금 인상은 자의적 결정 아냐... 양허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운영사 밝혀

August 20, 2025 | Ashley Erika O. Jose | BusinessWorld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여객 서비스 요금(PSC) 인상 계획은 양허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공항 운영사가 수요일 밝혔다.

뉴 NAIA 인프라 코프(NNIC)는 성명을 통해 PSC 조정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며, 양허권이 부여될 당시 합의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DoTr), 마닐라국제공항청(MIAA)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로젝트 자문단은 NAIA 민관협력(PPP) 입찰 과정에서 양허권자가 운영하게 될 재정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어느 낙찰자라도 동일한 일정을 적용했을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PSC(여객 서비스 요금, 일명 터미널 이용료)는 출국 승객에게 부과된다. 현재 국내선 승객은 200페소, 국제선 승객은 550페소를 내고 있으며, 이 요금은 다음 달부터 각각 390페소와 950페소로 인상될 예정이다.

NNIC는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는 터미널 요금 인상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NNIC는 이전의 SMC SAP & Co. 컨소시엄으로서 1,706억 페소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25년간 국가의 주요 관문 공항을 운영·유지·개선하기로 했다.

NNIC는 공항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3,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객 터미널 건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총 9,000억 페소, 연간 360억 페소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교통부(DoT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MIAA가 매년 평균 11억7천만 페소를 납입한 것과 비교된다.

NNIC는 “민영화와 관련해 NAIA 운영 이양은 경쟁적이고 투명한 입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정부가 PPP 모델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국가의 주요 공항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전문성, 기술을 세금 부담 없이 도입하기 위함이었다” 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8/20/692855/naia-fee-hikes-not-arbitrary-allowed-by-concession-terms-operator-says/>

필리핀, '기업활동 용이성 법' 으로 외국 기업 유치 확대

August 22, 2025 | Michael Din Dela Cruz | The Manila Times

필리핀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로 필리핀의 '기업활동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법' 덕분이라고 아보이티즈 인프라캐피탈(Aboitiz InfraCapital) 경제특구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입주 기업(로케이터)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기업활동의 용이성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검토할 때 규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라고 AIC 경제특구의 모니카 로렌자나 트라하노(Monica Lorenzana Trajano) 부사장은 화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라하노는 또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필리핀 내 기업의 회복과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크리에이트 모어(Create More) 법' 역시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정부가 인프라, 자유무역협정 등 여러 측면에서 실제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법에 따른 인센티브에는 20%의 법인세율, 부가가치세 혜택, 에너지 및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등이 포함된다.

트라하노는 자사의 경제특구들이 필리핀경제구역청(PEZA)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PEZA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희는 또한 입주 기업들이 PEZA와 세관(Bureau of Customs)에서의 입·출국 절차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트라하노는 덧붙였다.

그녀는 AIC 경제특구와 PEZ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EaseBiz' 프로그램도 강조했다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PEZA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다 직접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컨시어지(일종의 전담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AIC 경제특구의 산업단지 중 하나인 리마(LIMA) 에스테이트는 투자자 서비스 강화와 규제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리핀경제구역청(PEZ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C 경제특구의 영업 및 임대 담당 부사장보인 니코 데 레온(Nico De Leon)은 외국 기업들에게 현지 노동력과 인프라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저희는 아보이티즈 그룹(Aboitiz Group)의 일부로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력과 수도 같은 필수 유틸리티이며, 저희 단지는 아보이티즈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데 레온은 말했다.

그는 “수출이든 내수용이든 관계없이, 기업들은 이미 완전 통합된 산업단지에 입주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AIC 경제특구의 최종 모기업인 아보이티즈 에쿼티 벤처스(Aboitiz Equity Ventures)의 주가는 수요일 25센타보(0.84%) 하락한 29.35페소를 기록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8/22/business/top-business/philippines-attracting-more-foreign-businesses-with-ease-of-doing-business-law/2171981>

성장률·물가 부진에 완화 기조 지속

August 22,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REUTERS

국제 싱크탱크에 따르면, 1분기 경제의 부진한 성과와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해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피치 솔루션스(Fitch Solutions) 계열사인 BMI는 최신 경제 보고서에서 BSP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50bp(0.50%p) 인하해 4.75%까지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BMI는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의 5.5%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2.2%에서 낮아진 평균 1.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ont. page 4]

성장을 · 물가 부진에 완화 기조 지속

[Cont. from page 3]

BMI는 “국내 활동이 둔화되고 수출 선적(프린트로딩)이 점차 줄어드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부진은 향후 몇 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또한 BMI는 중앙은행 금통위(Monetary Board)가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은 이미 7월에 0.9%까지 둔화되었으며, BSP의 목표 범위인 2~4%를 밑돌았다.

“특히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에너지 관련 가격 압력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25년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라고 BMI는 설명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BMI는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페소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BMI는 2025년 하반기 필리핀 페소가 미 달러당 55.2~59.2페소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말에는 달러당 57.22페소 수준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의 상황이 꼽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 완화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BMI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금리 인하가 재정 건전성 악화나 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그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필리핀 페소와 같은 신흥국 통화에 대한 위험 신호를 지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앞서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최근 근원 인플레이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여전히 “검토 대상(on the table)” 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12/policy-rate-cuts-still-on-table-amid-inflation>)

필리핀 경제언론인협회(EJAP) 포럼에서 BSP의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2027년까지 3%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은 평균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필리핀통계청(PSA)은 7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6월의 2.2%보다 높지만, 지난해 같은 달의 2.9%보다는 낮은 수치다. (관련 기사: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06/july-core-inflation-worries-analysts/>)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2024년 8월 기준금리를 25bp(0.25%p) 인하해 6.25%로 조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다시 25bp 내려 6%로, 12월에는 추가로 25bp를 인하해 2025년 말에는 5.75%까지 낮췄다.

BSP는 2025년 1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같은 해 4월 25bp 인하해 5.5%로 조정했고, 6월에는 다시 25bp를 인하해 5.25%로 낮췄다.

Image credits: ALEXEL KORNYLEV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22/easing-to-persist-on-weak-gdp-inflation/>

BMI: BSP, 하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

August 21,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물가상승률 둔화가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제공함에 따라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치 솔루션스(Fitch Solutions) 산하 BMI가 밝혔다.



목요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BMI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완만한 성장세가 BSP로 하여금 하반기에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4.7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 인플레이션은 0.9%를 기록하며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다.

BMI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치 2.2%에서 하향 조정된 1.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nt. page 5]

BMI: BSP, 하반기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

[Cont. from page 4]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5.4%에 그쳤으며, 2분기에는 소폭 상승해 5.5%를 기록했다.

BMI는 “2025년 하반기(BSP)가 커져가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친(親)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BMI는 추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황이 달러에 부담을 주면서, 폐소화가 현재 수준보다 소폭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BMI는 “투자자들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가로 약화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은 현 수준인 미 달러당 57.22페소보다 다소 강세를 보이며 연말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7038>

인프라 지출, 6월에 반등

August 22,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Workers from the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 continue working on the flood control project of Marikina City. — PHILIPPINE STAR/WALTER BOL-LOZOS

예산관리부(DBM)는 5월 초 선거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 공공사업 지출이 재개되면서, 6월 인프라 지출이 반등했다고 밝혔다.

DBM이 목요일 발표한 최신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인프라 및 기타 자본 지출은 전년 동월 1,397억 페소에서 6.5% 증가한 1,488억 페소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1,238억 페소에서 20.2% 증가했다.

이는 5월 인프라 지출이 연간 기준 9.2% 감소한 뒤 나타난 반등이다.

DBM은 “이는 선거 금지 기간으로 인해 4월과 5월 두 달간 감소했던 공공사업고속도로부(DPWH)의 지출 실적이 회복된 데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의 공공사업 지출 45일 금지 조치는 3월 28일에 시작돼 5월 12일 선거와 함께 종료됐다.

6월에는 공공사업고속도로부(DPWH)가 신규 발주 사업의 동원비 지급과 기성금 지급을 재개했으며, 이전 연도의 미지급 의무도 정산했다.

다만 DBM은, 지난해 6월 국방부의 개정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Revise AFP Modernization Program)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집행된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6월 인프라 지출 증가세가 다소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2012년부터 350억 달러 규모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군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DBM은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인프라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메나 F. 팡안다만 예산부 장관은 앞서 “45일간의 선거 금지가 해제된 이후, 5월 말에서 6월 사이 집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리잘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인프라 지출 확대가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카포트는 목요일 바이버(Viber) 메시지를 통해 “인프라 확충은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투자·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상반기 전체 인프라 및 자본 지출은 전년 동기 6,118억 페소에서 1.4% 증가한 6,202억 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집행 목표치인 6,210억 페소보다 0.1% 혹은 8억 페소 적은 수준이었다.

DBM은 “올해 1분기 인프라 지출은 전년 대비 20.8%(450억 페소)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선거 기간 중인 4월 전체와 5월 첫 2주 동안 공공지출이 제한되면서 9.3%(366억 페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Cont. page 6]

인프라 지출, 6월에 반등

[Cont. from page 5]

한편, 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출자, 지방정부 단위(LGU)로의 이전 등을 포함한 전체 인프라 지출은 1~6월 기간 동안 7,205억 페소에서 7,203억 페소로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이는 상반기 전체 인프라 지출 목표치인 7,180억 페소를 0.3% 초과한 수준이다.

DBM은 지방정부 단위로 이전된 인프라 지출, 특히 국가세 배분금(National Tax Allotment)의 20%에 해당하는 개발기금의 증가가 있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인프라 활동과 국가관계청(NIA) 등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이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6월 국영 기업에 제공된 보조금은 74억5,000만 페소로, 전년 동월 101억6,000만 페소에서 26.68% 줄었다.

특히 NIA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75억2,000만 페소에서 68.21% 감소한 23억9,000만 페소로 급감했다.

DBM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전체 인프라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5.3%를 기록해, 올해 전체 목표치인 5.3%와 부합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 예산지출 및 재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간 인프라 지출 프로그램을 GDP의 5.3%에 해당하는 1조5,100억 페소로 책정했다.

DBM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선거 금지 기간 종료 후 집행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부처별 프로그램·활동·프로젝트에 대한 배정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에는 2분기 미집행 현금 배정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부처들이 이를 요청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납품 완료된 물품이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급업체 또는 계약자에게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지출을 이끌 요인으로는 다수의 완공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기성금 지급, 그리고 국방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집행 등이 예상된다.

리카포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몇 년간 GDP 대비 5~6% 수준의 인프라 지출 확대는 최근 몇 년간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지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8/22/693066/infrastructure-spending-rebounds-in-june/>

[다가오는 행사]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2012년부터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Arangkada Philippines Forum)*은 필리핀의 투자, 경제 개혁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연례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파사이 시 마리옌트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의 저명한 리더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 전략과 기업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합동 외국상공회의소)**가 선정한 7대 ‘성장 유망’ 부문인 ▲농기업(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포럼 첫날에는 정부 및 기업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7개 부문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의 독점적인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실시간 제품 및 비즈니스 시연, 그리고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산업 토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스폰서십 문의는 아랑카다 필리핀 웹사이트의 [브리퍼(Briefer)], [후원 등급(Sponsorship Tier)], [확인서(Confirmation Form)]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KCCP 사무국(전화: (632) 8885-73-42 / 이메일: info@kccp.ph)**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qrc_OGtu0y-PZCQvnmSbvt2Xuraw/viewform

ARAN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RICKY GARANDANG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HEAD OF
EXTERNAL AFFAIRS



ELAINE COLLADO
COUNTRY DIRECTOR
PHILIPPINES
VRIENS & PARTNER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MARICAR BAUTISTA
SPOKESPERSON FOR
BUSINESS
INFRASTRUCTURE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PAU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GRACE MIRANDILLA-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KADA
BROADBAND POLICY BRIEF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AFAEL ONGPIN
EXECUTIVE DIRECTOR
MAKATI BUSINESS CLUB



**MONICA LORENZANA
TRAJANO**
VICE PRESIDENT FOR
COMMERCIAL STRATEGY
ABOITIZ INFRASTRUCTURE
ECONOMIC ESTATES



RUBEN CAMBA
MANAGING DIRECTOR
SOUTHEAST ASIA
ACCIONA
INFRASTRUCTURAS



**ENGR. EMMANUEL
CAGUIMBAL**
FOUNDER AND CEO
XPERTO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kadaphilippines.com.

- www.arankadaphilippines.com
- [/Arankada Philippines](https://www.facebook.com/ArankadaPhilippines)
- [/arankadaphilippines](https://www.instagram.com/arankadaphilippines)
- [/ArankadaPH](https://twitter.com/ArankadaPH)
- [/Arankada Philippines](https://www.linkedin.com/company/Arankada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ORGANIZ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200 MW Cebu CFBC Power Plant



KEPCO
PHILIPPINES

KEILCO
KEPHILCO
KSPC
KPHI

ENERGIZING LIVES,
POWERING COMMUNITIES



63.3MW Calatagan Solar Farm